

漢醫學上으로 본 茶山醫學의 特色(下)

趙憲泳

儒學者를 비롯하여 朝鮮의 漢學者는 누구나 勿論하고 모도가 中國서 온 것이라면 無條件하고 盲從 墨守하여 敢히 批判할 生意도 못하겠는데 茶山先生은 漢醫學界에 神聖不可侵인 黃帝內經에도 그 銳利한 批判의 칼을 아끼지 않았스니 一二의 例를 들면

1, 內經에 『清氣大來金之勝也…金燥受邪肺病生焉…濕氣大來土之勝也…土濕受邪脾病生焉』이라고 한 대 對하여 丁子 曰 非理也 | 라 하고 그것을 評하되 『天下에 火보다 더 燥한 것이 업는데 金이 燥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며 天下에 水보다 더 濕한 것이 업는데 土가 濕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土가 濕한 것은 물이 잇기 때문이다. 土로하여곰 물을 엇지 못하게 하면 乾燥할 뿐이다. 土 本 濕이라고 한 것이 誤謬가 아닐까보냐』 하얏스며

2, 內經에 『春傷禦風, 夏生殖泄…秋傷禦濕, 冬生咳嗽』라고 한 대 對하여 丁子 曰 非理也 | 라 하고 다음과 가티 批判하얏다.

『春風和暢에 何所 中毒고 秋日清涼에 何以 得疾고 秋屬於金인데 既云 金燥하고 何謂 秋濕고 四時之中에 秋氣特燥어늘 何往得濕하야 而至中傷乎아』 하얏다.

여기에 對해서는 漢醫學的으로 論評할 點이 업지 안흐나 何如間 內經에 對하야 그런 態度를 가졌다는 것만 紹介한다. 以上 六氣論.

3, 『不惟時醫爲可愼揀이오, 雖古醫라도 亦當審其立心之正邪와 見理之精麤와 治術之專雜과 持論之通偏而選擇取舍之也 | 니……… 不可以古醫而盡信之也 | 니라 (古醫論)하얏고 張景岳 評 갓흔 것은 實로 適切하다.

二, 茶山先生은 朝鮮的 漢醫學者다.

茶山先生은 무엇이던지 實際를 土臺로하야 事物을 觀察하고 判斷하얏다. 그러므로 茶山은 眞正한 朝鮮의 醫學者이다. 『麻科會通』에는 朝鮮서 痘疫과 麻疹이 流行한 年表를 提示하야 朝鮮의 氣候와 發病의 關係를 觀察하얏스며 劑量論에 가서 藥의 斤兩은 藥材의 氣味를 觀察하야 重量을 加減할 것이오,

古方의 重量에 執着해서는 못쓴다는 것을 말하였다. 假令 唐 黃連 一錢에 對해서 日本 黃連은 苦寒이 倍甚하니 唐 黃連보다 적게 써야 할 것이요, 朝鮮 黃連은 氣味가 薄劣하니 重量을 더 써야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三, 茶山은 學者的 偏見이 업섯다

古 醫論에서 醫家를 選擇하는대는 그 持論의 通偏을 審察하라고 하얏지마는 茶山 自身은 정말 一毫의 偏見을 가지지 안흔 公正한 學者였스니 그 時代に 發서 現代科學의 理論을 參互하기를 조금도 서슴지 안헸다.

『李明之曰 不能近視者는 陽不足也 | 오 不能遠視者는 陰不足也 | 라 하나 目之 近視遠視는 唯係瞳丸之平突하니 平則視心이 會於遠故로 遠視하고 突則視心이 會於近 故로 短視……』라고 하얏는데 이것은 眼球 水晶體의 焦點의 遠近에 依하여 近視, 遠視가 區別된다는 現代 西洋醫學의 理論을 取한것이다.

百年前에 發서 茶山先生은 그랫는데 지금 朝鮮 漢醫 가운데에 이 遠視, 近視의 瞳丸平突說을 理解하는 이가 果然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朝鮮의 漢醫들이여 朝鮮의 洋醫들이여 하로바빠 茶山을 배우라. 知識을 널리 求하는대 茶山先生은 이러케도 虛心하고 誠實하고 賢明하얏다. 百年이 지난 오늘에 잇서서도 오히려 漢醫는 漢醫學만 洋醫는 洋醫學만 드러다 보고 잇다는 것이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紙面關係로 이만 擱筆한다. 茶山先生을 理解하는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幸甚이겟다.(終)